

## 哲學의 世界觀的 基礎

### 哲學濫重의 概念에 抗하야(四)

金午星

이리하야 모든 哲學體系는 한가지로 世界觀, 存在論, 論理學의 秩序를 갖고 있는 것이다. 哲學의 根本問題는 存在와 論理의 解明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存在와 論理는 한가지로 世界觀의 基礎우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存在와 論理는 이미 世界觀에 依하야 限定되어 진 것이며, 그 解決의 方向이 指示되어 있는 것이다. 世界觀은 哲學의 基礎가 될 뿐 아니라, 哲學의 全行程을 支配하는것이다. 哲學은 世界觀에서 이미 限定된 存在와 論理를 이미 提示된 方向에서 合理的으로 解決하며 體系化하는데 不過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이 哲學依 價値를

低下 시키는 것은 決코아니다. 哲學은 世界觀에 支配됨으로서 오히려 人間의 生存을 表現하게되며 또한 人間生活에 指導的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哲學이 世界觀의 基礎우에서 움죽이는 것과 같이 世界觀은 오직 哲學에 依해서만 自體의 素朴性을 克服하고 한층 높은 階段에로 昂揚할수있는 것이다. 哲學的 世界觀 또는 世界觀的 哲學이 그러한 것이다.

哲學이 世界觀과 類似한것은 哲學은 (一)個別的인것을 對象으로하지만코 全體의인것을 探求하는것. (二)그리고 知, 情, 意의 그 어느 하나가 아니고 그것의

統體 的인 解明인것이다. 그러나 첫째 哲學에있어 全體의 普遍的 意識은 世界觀에 있어의 集團意識과 같이 모든 個性的 獨創性을 埋沒시키는 自然發生的인 原始意識이 아니고, 어대까지나 天才的인 個性的 獨創性에 依한 自覺的인 意識形態인 것이다. 世界觀은 어느 個人의 創意에서가 아니고 集團生活속에서 自然的으로 形成되는것임으로 그것은 言語, 神話, 道德 等の 傳統속에 保存되는것이나 哲學은 언제나 自覺된 存在의 理念과 洗鍊된 論理의 說明에 依하야 항상 形成되고 있는 것이다. 한時代, 한集團의 世界觀이 여러 가지 哲學形態를

可能케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哲學에 있어 統體觀念은 世界觀의 그것과 같이 知的分化 以前の 混頓한 意識形態가 아니고, 各種의 이데오로기-예컨대 自然科學, 社會諸科學, 宗教, 倫理, 藝術 等の 分化에 依하여 知, 情, 意의 各領域이 嚴密이 分析되며 深化된뒤에 그것을 統體的으로 把握한 意識形態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全體的, 또는 統體的 觀念이 世界觀의 그것을 深化하며 發展시키므로써 얻어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哲學이 世界觀의 制約을 받음은 哲學의 온갖 範疇가 世界觀에서 供給된것임에서 오는 哲學이 가진바 運命인 것이다.

그런데 近代의 哲學者들은 흔히 世界觀과 哲學과의 關係를 拒否하거나 또는 哲學의 領內에서 世界觀을 驅逐하려한다. 哲學과 世界觀을 意識的으로 分離시키려한 最初의 人은 칸트다. 칸트는 哲學의 概念을 講壇的 概念(Schulbegriff)과 世間的 概念(Weltbegriff)으로 分類했다. 『哲學은 哲學的 認識 또는 概念에 依한 理性認識이다. 그것은 이 學의 講壇的 概念이다. 世間的 概念에 있어는 哲學은 人間理性的 窮極目的의 學이다. 이 높은 概念이 哲學에 尊敬을 즉 絕對價値를 준다. 그리 하여 事實 그것만이 內的 價値를 가지며 달은 모든

認識 에 처음으로 價値를 준다』前者가 講壇哲學 즉 純正哲學이며, 後者が 市民哲學 즉 世界觀哲學인것이다. 칸트는 從來로 前者 즉 純正哲學에 從事해왔다. 그러나 이 純正哲學에서 實質的 空虛를 느낀 그의 末年의 思索生活은 다시 世界觀哲學의 必要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의 『實際論的 立場에서 본 人間學』이란 著書에 依하면 市民哲學은 아래의 무름에 要約된다.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3)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4)人間이란 무엇인가? 第一의 問에 答하는것이 形而上學, 第二가 道德, 第三이宗教, 第四가

人間 學이 答한다. 그런데 第三까지의 問은 第四에 連絡되며 거기에 歸納된다. 『人間이 그것을 通하여 學業을 닦는 文化에 依한 進歩란 全혀이 獲得된 知識과 技能과를 世界를 爲하여 使用한다는 目的을 갖고 있다. 그러나 人間이 世界가운데 그것을 適用할 가장 重要한 對象은 人間이다.

그것만이 그 自身の 窮極目的이다.』이리하여 市民哲學은 人間을 對象으로 하며 人間の 實際目的을 探求하는것으로서 形而上學, 道德, 宗教가 人間の 實際目的의우에서 解明되는것을 主張하였다. 이러한 見解가 우리가 以上에서 解明해온바 哲學의 基礎로서의 世界觀과 어느 程度의 類似性을 갖었음은 勿論이다.

그러나 그는 市民哲學이 實際的인 反對로 非實際的인 理性認識즉 純正哲學이 對峙됨을 主張함으로서 折衷主義을 取하였다. 하나 우리의 見地로 보면 市民哲學以外的 純粹哲學이란 事實 한 개의 空論이 아니었는가!